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월터스토프 평화교육의 적합성 검토

김현정(성환초등학교)/유재봉(성균관대)

I. 서론

현대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바탕을 둔 다원주의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원주의는 절대적인 옳음과 그름을 따져 선별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존중하고 허용하고,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며, 획일적으로 거대담론에 치우치기보다는 소수의 의견조차 존중함으로써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을 하나의 절대 진리로 여기는(Veith, Jr., 1994/오수미 역, 1998: 14) 모순된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맥킨타이어에 따르면, 이러한 다원주의의 문제의 원인은 '개인적 자유주의'에 있다(MacIntyre, 1981/이진우 역, 1997: 24-47). 개인적 자유주의는 판단의 기준이 인류가 추구해 온 절대적 선이나 역사 등 거시적 맥락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정서에 달려있다고 본다. 개인의 의견이 결국 판단의 기준이 되며, 공통된 가치관이 붕괴되고 목적의식이나 이상이 상실됨에 따라 개인과 사회에 혼돈이 나타나게 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전쟁이나 사회 구조의 모순으로 인한 갈등을 넘어서 사상적 불일치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포괄한다. 절대적 진리가 없는 다원주의 사회는 개인과 사회의 의견 불일치, 개념의 탈맥락화, 도덕적 판단 원칙의 부재 등의 문제를 갖게 되며,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의 문제는 내적 갈등으로서 외적 갈등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적합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현대 교육은 어떠한가? 교육은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본질적으로는 그 원인이 되는 가치 혼돈을 극복하여 개인과 사회의 안정을 되찾고 번영을 도모하는 일이다. 갈등과 폭력의 극복과 균형을 되찾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평화교육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의 재발을 막고 각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등장하였다. 이후 시대에 따라 존재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평화 개념과 목적이 변화되어 왔다. 교육에서 추구해 온 평화 개념은 크게 통념적 평화, 비판적 평화, 총체적 평화가 있다. 통념적 평화는 전쟁이 없는 표면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며, 비판적 평화는 사회 구조의 문제까지 해결된 상태에서 보다 확장된 의미의 평화이다. 총체적 평화는 전쟁과 억압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적극적 관계 형성을 통한 보다 본질적 의미를 추구하는 적극적 평화이다.

총체적 평화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월터스토프(N. P. Wolterstoff)를 들 수 있다. 그는 교육에서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평화를 강조하고, 교육의 원리로서 모든 존재와의 관계 형성, 정의 실현, 기쁨

향유를 제시한다. 관계 형성은 인간은 온 우주와 유기적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주변의 존재들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좋은 삶을 이루어간다는 것이다. 정의 실현은 그릇된 관계가 아닌 올바른 관계의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누리며 다른 사람과 공존함으로써 좋은 삶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 진리에 토대를 둔 기쁨을 향유하는 것은 공정한 제도와 과업의 수행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존경, 섬김, 배려, 사랑, 미적 향유에 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며 가장 궁극적인 상태로써 평화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그의 평화교육은 현대 교육의 도덕성 상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실재(reality)의 이해를 중시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윈주의 사회에서 월터스토프 평화교육이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평화 개념의 다원성을 살펴보고, 다윈주의 사회에서 월터스토프 평화교육의 적합성을 개념적 측면, 평화 구현의 측면,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월터스토프 평화교육이 주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이 다윈주의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적합한지 검토함으로써 다윈주의 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의 방향과 의미를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II. 평화 개념의 다원성

다윈주의 사회에서는 절대적 진리가 부재함으로써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간에 일어나는 의견 불일치와 나아가 갈등과 분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교육이 요청된다. 평화교육의 양상은 평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평화의 개념은 사람, 시대, 사회마다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개념의 다원성을 가진다. 평화는 부동심이나 마음의 평정상태, 가정이 화목한 상태,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종교적 혹은 영적 평안 상태 등 다양하다. 그 중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것은 소극적 평화와 비판적 평화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소극적 평화와 비판적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평화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본다. 그리고 대안적 평화의 개념으로 월터스토프의 평화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통념적 평화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1. 통념적 평화

위에서 언급했듯이, 통념적 평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소극적 평화와 비판적 평화를 들 수 있다. 두 평화 모두 평화를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 등으로 소극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소극적 평화가 표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러한 상태인가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후자는 평화의 이면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 보다 자세하게 소극적 평화와 비판적 평화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것의 한계를 제시한다.

먼저, 소극적 평화이다. 소극적 평화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전쟁이나 폭력, 그리고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평화는 사전적 의미의 평화 개념이면서, 그 의미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소극적 평화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전쟁의 공포와 인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해결하고 더 이상의 관계의 악화와 전쟁으로 인한 소모를 막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죽음과 전쟁의 공포를 벗어나 생존을 위한 것으로서 평화는 좋은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여겨졌다.

소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주로 전쟁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유네스코 설립을 통하여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였으며, 서로 다른 문화와 국가체제에 대한 이해교육으로 오해의 발생을 막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산업자본주의와 식민주의 등으로 나타난 정복과 약탈의 문화를 벗어나는 데 기여했으며,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삶과 교육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극적 평화는 외적 전쟁이나 폭력, 그리고 다툼이나 갈등의 제거에만 중점을 둠으로써 지나치게 표면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평화를 누리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직접적인 전쟁이나 폭력 혹은 다툼이나 갈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실지로 한 사회 내에서 불공정한 억압의 구조로 인해 겪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고통을 겪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불가능하며, 폭력이나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극적 평화는 사회 구조 속에 잠재된 폭력을 간과하고 외적 평화만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평화 개념을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다원주의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듯이 보인다.

다음으로, 비판적 평화이다. 비판적 평화는 소극적 규정, 즉 전쟁이나 폭력, 다툼이나 갈등의 상태가 없는 상태로 본다는 점에서 소극적 평화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소극적 평화와 비판적 평화는 그러한 전쟁이나 폭력, 다툼이나 갈등을 없애는 것이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 점에서 일치한다. 소극적 평화가 외적인 표면적인 폭력과 갈등이 없는 상태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비판적 평화는 그러한 폭력이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사회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사회 내에는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내재되어 있으며,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회적 위치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는 사회 이면에 들어있는 제도나 구조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조적 평화’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제도나 구조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그것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점에서 ‘비판적 평화’라 부를 수 있다. 비판적 평화는 표면적인 폭력의 부재 상태를 넘어 구조적 폭력 부재의 상태까지 포함함으로써 평화 개념을 보다 확장시켰다. 다시 말해, 비판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나 갈등 뿐 아니라 불공정한 사회 구조에 따른 폭력이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갈통(J. Galtung)은 사회의 구조적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를 제시한다. 제도는 화합을 위한 쌍무적이고 다자간의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착취나 억압의 구조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예컨대, 유럽의 각국이 유럽연합(EU)을 형성하여 유럽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간 것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세안(ASEAN)을 설립하여 경제 또는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도모한 것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한 국가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사회적 규약이나 법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는 등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법이나 규약을 통하여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Galtung, 1996/강종일 외 역, 2000: 147). 비판적 평화는 폭력의 범주를 불공정한 제도로 인한 잠재적 갈등까지 확장하여 제도 개선을 통하여 차별과 소외로 인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비판적 평화는 표면적이고 외적인 전쟁이나 폭력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제도적 폭력의 부재를 문제 삼은 점에서 통념적 평화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나는 구조적·제도적 폭력의 부재 그 자체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평화 개념의 한계이다. 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비판적 평화는 사회적 측면의 구조로 인한 폭력의 부재를 포괄하고 있으나, 그 수단을 ‘제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도는 그 특성상 비지속적이며, 한 사회의 제도는 다른 사회에서는 오히려 위협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사회의 악을 고려하면,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와 관련한 문제로서, 이것은 소극적 평화와 비판적 평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비판적 평화는 통념적 평화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평화의 의미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소극적 의미의 평화는 평화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전쟁이나 폭력의 부재상태와 같은 평화의 소극적 측면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지만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은 아니다. 소극적 의미의 평화는 표면적인 전쟁이나 폭력의 부재의 상태를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평화의 개념에 따라 나오는 기쁨을 향유하는 것과 같은 평화의 적극적 의미를 누리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비판적 평화는 제도를 통해 비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온전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표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한 소극적 의미의 평화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평화가 요구된다.

2. 대안적 평화: 월터스토프의 평화

통념적 평화를 대표하는 소극적 평화와 비판적 평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평화의 개념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대안적인 평화는 통념적 평화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와 동시에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적 평화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로 월터스토프(N. P. Wolterstorff)를 들 수 있다. 그는 기존의 평화 개념을 포괄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평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월터스토프는 평화를 “모든 존재와의 관계에서 정의를 전제로 하며 기쁨을 추구하는 상태”로 규정한다. 월터스토프의 평화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관계, 정의, 기쁨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관계의 요소이다. 월터스토프는 각 존재가 우연적이고 상호 무관한 것처럼 보이나, 실지로는 서로 얽혀있음을 주장한다. 월터스토프는 자연과 크고 작은 다양한 인간 공동체를 포함한 온 우주가 생명의 질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이 점에서 월터스토프의 평화는 범위 면에서 인간 사회 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총체적 세계를 대상으로 하며, 그러한 총체적 세계가 서로를 해하고 짓밟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속에 서로를 살리는 평화적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다(김현정, 2014: 23-24). 월터스토프의 평화는 총체적 세계 간의 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통념적 평화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의의 요소이다. 월터스토프는 평화의 전제로서 정의를 전제로 한다. 총체적 세계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 사이에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상태가 아닌 정의가 전제하고 있다. 말하자면, 월터스토프의 정의는 표면적 평화나 위선적 평화가 아닌 정의에 바탕을 둔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의에 바탕을 둔 평화는 비판적 정의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조적 부정의 문제의 해소를 기본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점에서 비판적 평화의 관심사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쁨의 요소이다. 월터스토프의 평화 개념은 총체적이고 정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것은 통념적 평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거나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념적 평화에 비해, 월터스토프의 평화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아마 평화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정의 자체로는 삶의 만족을 적극적으로 누리게 하거나 평강과 화평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향유하게 할 수 없다(Wolterstorff, 1983/홍병룡역, 2007: 144). 참된 평화는 기쁨을 향유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는 것임을 강조한다. ‘정의’가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라면, ‘기쁨’은 그 위에서의 즐겁고 만족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기쁨’은 단순한 심리적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과 본연의 관계 속에서 부여받은 삶의 주제이며 목적(telos)이다. 월터스토프에게 좋은 삶은 신의 주제를 반영함으로써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풍요로워지며 더 나아가 신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월터스토프에게 있어서 기쁨은 실재(reality)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계 회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삶의 결과를 풍족하게 누림으로써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동이자 감탄인 것이다.

월터스토프의 평화는 범위 측면에서의 총체성, 전제로서 정의 추구, 의미 규정상 적극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범위 측면에서의 총체성은 인간 삶의 범주를 인간관계뿐 아니라 우주의 모든 존재와의 관계로 확장시킨 것이다. 전제로서 정의 추구란 이러한 총체적 세계에 대한 모든 관계는 정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의미 규정상 적극성이란 다양한 유형의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기쁨을 누리는 상태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극적 평화가 표면적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둔다면, 비판적 평화는 표면적 문제를 포함하면서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둔다. <표1>에서 보듯이, 월터스토프의 평화의 개념은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포함하면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사상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총체적 문제의 해결이라 할 수 있다.

<표1> 여러 가지 평화의 갈등 해결 양상

| 구분 | 소극적 평화 | 비판적 평화 | 월터스토프의 평화 |
|----------|--------|------------|--------------------------|
| 갈등 해결 양상 | 표면적 | 표면적 구조적 | 표면적 구조적 근본적 적극적 |

다양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사상의 혼재와 가치 기준 상실로 인해 논쟁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다원주의의 문제는 평화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월터스토프는 평화를 총체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적합하다. 그는 또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끝없는 논쟁으로 치닫는 다원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다원주의 사회에서 월터스토프 평화교육의 적합성

앞 장에서 통념적 평화의 개념과 그것의 한계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한 대안적 평화 개념으로 월터스토프의 총체적 평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월터스토프의 평화 개념에 바탕을 둔 평화교육이 무엇이며,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이 개념적 측면, 평화구현의 측면, 교육의 측면에서의 적합성을 논의한다.

1.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은 기존의 교육이 지식이나 웰빙을 추구하는 반면, 이를 넘어서 평화를 궁극적 교육목적으로 추구한다(김현정·유재봉, 2014: 50-54). 현대 교육은 개인의 좋은 삶을 영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이웃의 슬픔을 그대로 방치한 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월터스토프의 관점에서 평화는 좋은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핵심 가치로서, 우주적 관계 속에서의 정의에 바탕을 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교육목적으로서 평화는 다른 요소의 전제나 배경이 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향점이 된다. 적극적 개념인 월터스토프의 평화는 갈등과 문제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 서로 화목한 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교육의 다른 요소들, 즉 지식과 욕구 등을 넘어서는 이상적인 상태이다. 예컨대, 국어나 수학의 지식이 그 자체로 유의미하기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는 데 유용한 관점이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교육목적으로서 평화는 궁극적인 도달점인 동시에 다양성을 수용하고 질서 있는 세계를 형성한다. 월터스토프의 관점에서 평화는 그저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공정한 질서를 추구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아 공존하는 상태이다. 유기적 세계 속에서 다양한 존재들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커다란 생명의 원리 속에 질서를 가지고 살아간다. 교육목적으로서 평화 추구는 자신의 판단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도록 한다. 다양한 것을 포용한 가운데 평화라는 큰 가치를 함께 추구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교육목적으로서 평화 추구는 기존의 교육을 보완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까지 포괄하여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다. 즉, 개인의 삶의 만족을 넘어서 개인과 사회의 측면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총체적 교육목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며, 여기에는 정의와 기쁨을 포괄한다. 정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며, 기쁨은 정의가 실현된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만족과 감동이라는 올바른 감정의 향유이다. 교육에서 정의와 기쁨의 요소는 폭력과 갈등이 만연한 삶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본래적인 조화로운 세계의 모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월터스토프의 평화는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기독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로

평화로운 관계로 나아가도록 한다. 기독교적 전통에서 신의 사랑은 인간의 관계로 확장되며,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신을 올바로 섬기고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평화의 상태를 제시한다.

월터스토프는 그의 평화교육의 원리로서 관계 형성, 정의 실현, 기쁨 향유를 제시한다. 평화교육의 원리는 단계적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평화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성취는 교육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적 삶 속에서 학생이 기쁨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을 교육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 형성이다. 월터스토프는 교육에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한다.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유기적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주변의 존재들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삶을 이루어나간다. 관계 형성은 인간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자연과 온 우주를 포함한다. 교육에서 관계 형성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즉 통합된 인격의 형성과 전우주적 범주의 관계 형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통합된 인격의 형성은 다양한 지식을 분명한 자신의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자아의 형성을 의미한다. 통합된 인격은 지식을 통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아가 올바른 가치를 수용하여 올바른 사고 작용과 일관된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둘째, 전우주적 범주의 관계 형성이다. 교육은 내적 자아를 통하여 온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만 외부적 환경과 무관할 수 없다(Wolterstorff, 2002: 28). 전 우주적 범주는 내적 자아를 비롯한 외부세계인 가족, 동료, 사회 등 인간의 공동체 뿐 아니라 자연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간 삶은 그 속에서 공존하며 나아가게 된다. 커다란 우주적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고립되어 독단적으로 살아간다면 생명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둘째, 정의 실현이다. 인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형성은 항상 올바른 관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을 억압하는 관계 속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월터스토프에 따르면, 정의는 평화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누리며 다른 사람과 공존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Wolterstorff, 2002: 279).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되어 사회 전체가 정의를 추구하는 제도적 노력을 수반하며, 교육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원리에는 책임, 권리, 사회 정의의 요소 등을 포함한다. 책임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바람직한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범주는 개인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타인, 자연, 생명,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대상에 대한 책임까지 포괄한다(Wolterstorff, 2002: 282). 권리는 개인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한으로서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인 인권을 전제로 한다. 평화교육에서 권리의 보장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힘이 약하여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돌봄, 배려의 형태로도 이루어짐으로써 평화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정의는 사회 전체의 구성원이 공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관계와 구조를 갖는 것이다. 교육에서 사회 정의의 추구는 불의한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알도록 하며,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부당함을 느끼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기쁨 향유이다. 정의만으로는 온전한 평화로 간주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원리와 원칙에 맞춰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다소 냉정한 이미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월터스토프 평화교육은 교육에서 정의 실현을 넘어서 기쁨 향유로 나아간다.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은 공정한 제도와 과업의 수행을 넘어서지 못하는 현대 교육은 기쁨의 향유를 추구한다. 모든 사람이 정의로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룸으로써 진리에 기반한 기쁨을 누리

는 상태는 평화의 궁극적 상태이다. 기쁨을 추구하는 교육은 인간은 동물과 달리 기쁨을 향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Wolterstorff, 1980/신국원 역, 2010: 155). 평화교육에서 기쁨의 향유는 올바른 약속을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존경, 섬김, 배려, 사랑, 미적 향유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존경, 섬김, 배려, 사랑은 강제적 요구가 아닌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기쁨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미적 향유로서 기쁨의 한 형태인 심미적 만족은 새들의 노랫소리나 꽃향기와 같이 사물이 어떻게 보이고 들리는지 또는 향내 내는지에 근거한 감각적 감상 뿐 아니라 철학자들이 ‘궁극적 실재’라고 부르는 실재(reality)의 비감각적 감상을 포함한다. 감각적 측면의 심미적 만족은 비감각적 측면의 심미적 만족으로 이어졌을 때 보다 더 심오하고 흥분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Wolterstorff, 1980/신국원 역, 2010: 157-158). 평화교육에서 기쁨의 향유는 조화와 균형의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알고 즐겁게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2. 월터스토프 평화교육의 적합성 검토

교육목적으로서 총체적 평화를 추구하는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이 다윈주의 사회에서 적합한 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은 다윈주의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적합한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개념적 측면, 평화 구현의 측면, 교육적 측면에서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개념적 측면에서의 적합성이다. 월터스토프가 교육목적으로서 추구하는 적극적 평화 개념은 다윈주의 사회의 위기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이다. 기존의 평화 개념은 교육에서 좋은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추구하기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협소한 범주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월터스토프의 평화 개념은 적극적 평화로서 총체적 범주를 대상으로 하고 실재를 포함한다. 월터스토프의 평화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윈주의 사회에서 덕의 재구성을 주장한 맥킨타이어의 덕이론에 비추어 보고자 한다. 맥킨타이어는 그의 저서 『덕의 상실』(After Virtue)에서 간단한 분석 준거를 제공한다. 맥킨타이어가 보기에 덕은 ‘사회적 실재’(practice), ‘삶의 서사적 통일성’(narrative unity of a human life), ‘전통’(tradition)이라는 삼중적인 측면의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충족시킬 때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유재봉, 2001: 74; MacIntyre, 1981/이진우 역, 1997: 227-328).

첫째, 사회적 실재의 관점이다. 사회적 실재란 인간의 가치가 삶 속에 실현되는 특정한 활동 형식이며,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인 형태를 띤다. 월터스토프에 의하면, 세계를 구성하는 지식, 가치, 문화 등 모든 산물은 참여자들 간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역사적 결과물이다(Wolterstorff, 2004/신영순 외 역, 2014: 378). 즉, 단독적으로 생겨나기 보다는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생겨나는 것으로서 교육에서 추구하는 지식과 가치는 사회적 실재를 추구한다. 이처럼 관계 맺음을 통하여 사회적 산물이 생성되는 이유는 인간은 고립된 상태가 아닌 우주적 생명계의 원리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 형성은 인간뿐 아니라 우주를 포함한 총체적 범주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올바른 관계라 볼 수 없으며, 총체적 범주에서 그릇된 관계는 종종 일어난다. 예컨대, 그릇된 자연과의 관계는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할 뿐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자연환경의 심각한 훼손과 오염을 가져오고 결국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올바른 것 뿐 아니라 그릇된 것도 포함하며, 이를 보다 보완하기 위해서는 좋은 삶에 대한 일관성 있는

숙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삶의 서사적 통일성의 관점이다. 이것은 개인이 좋은 삶을 실천하기 위해 삶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만들어가는 큰 이야기이다. 월터스토프에 의하면, 인간은 통제신념(control beliefs)을 통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이론의 저울질(weighing)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좋은 삶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추구하게 된다(Wolterstorff, 2004/신영순 외 역, 2014: 380-382). 월터스토프는 좋은 삶의 일관성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justice)에 대해 제시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내러티브를 제시함으로써 그런 일들을 행한다. 성경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그 속에서 모든 만물들은 다른 만물들-하나님, 인간, 자연-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다른 모든 만물들과의 올바른 관계는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의가 없으면, 즉 이 세계에서 주변부로 밀려나서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고 그들의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평화는 없다.”(Wolterstorff, 2004/신영순 외 역, 2014: 269-270).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은 인간 삶의 서사적 통일성으로서 정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월터스토프에 의하면, 정의는 평화의 필수조건이다. 권리 개념과 밀접한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받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다. 정의가 결여된 관계 속에서 걸음으로 보기에 다름이 없다 하더라도 잠재된 갈등이 존재함으로써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의만으로 평화를 성취할 수 없다. 쌍무적인 제도적 관계는 상대방을 그 자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이나 권력 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무의 수행에 따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관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 자체만으로는 온전하다고 볼 수 없다. 평화는 의무적 관계나 조건적 관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조건 없는 배움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더 가깝다.

셋째, 전통의 관점이다. 전통은 개인 선 추구가 이루어지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다 확실한 논증을 제공한다. 월터스토프에 의하면, 평화는 기쁨으로 나아갈 때 완성될 수 있다. 기쁨은 삶의 서사적 통일성으로 추구된 정의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으로 실재를 인정하는 기독교 전통에서 그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

“평화는 올바른(right) 것을 초월한다. 평화는 기쁨과 즐거움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어색하게 한다. 그것은 아마도 어린 아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은 도달하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유치하고 바보 같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Wolterstorff, 2004/신영순 외 역, 2014: 269)

기쁨의 개념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하여 다른 사람과 모든 관계로 확장되는 것으로, 인간 삶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궁극적 상태이며 각 존재가 조화로운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기쁨을 향유한다는 것은 현대인에게 자칫 쾌락의 개념으로 축소될 수 있으나 최고의 탁월성의 성취라고 이해되는 것이 옳다. 월터스토프는 이처럼 실재를 인정하는 전통에 근거하여 평화를 새로운 세계 인식 토대로 삼아 기존의 물질주의적 관점을 극복하고 도덕성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요컨대, 월터스토프가 교육목적으로서 추구하는 평화는 사회적 실제, 삶의 서사적 통일성, 전통의 축

면에서 모두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한 덕으로서 조건을 갖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평화 구현의 측면에서의 적합성이다.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은 평화를 얼마나 구현할 수 있는가? 월터스토프는 표면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강조하거나 제도를 통한 한정된 소극적 의미의 평화 추구가 아니라,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것을 관계, 정의, 기쁨의 성취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의 성취이다. 관계의 성취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들은 각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존재하고 있으나 상호소통의 부재로 인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상호 소통하도록 함으로써 각 요소가 공존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 정의의 성취이다. 이것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각 요소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상호소통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빼앗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월터스토프의 평화는 구조적 부정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질서나 힘의 원리로 지배되는 구조가 아닌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위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온전한 평화의 전제조건을 갖춘다.

셋째, 기쁨의 실현이다. 기쁨은 서로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각각의 탁월성이 성취되는 것까지 나아간다. 규범과 제도를 통한 경직된 해결을 넘어서 각각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할 때 비로소 다원주의 사회의 상실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객관적 준거 없이 각자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해결점이 없는 의견 불일치가 이루어져 왔다. 각자의 탁월성이 성취되어 평화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도덕적 준거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우선성을 결정하고자 할 때 그 준거는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의 기쁨의 성취, 즉 각각의 탁월성의 성취에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비로소 아낌없는 양보와 배려가 가능하며 결과적으로는 양자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모든 존재가 온전히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태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측면에서의 적합성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좋은 삶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은 지식이나 웰빙으로 개인의 좋은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의 개념의 확장, 교육에서 정의와 기쁨의 추구, 도덕적 판단의 준거 제공을 통하여 좋은 삶을 충족시킨다.

첫째, 좋은 삶의 개념을 확장한다.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은 기존의 교육이 개인의 좋은 삶만을 추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인과 사회 모두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좋은 삶의 의미를 넓힌다. 교육 목적으로서 평화 추구란 갈등과 문제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 서로 화목한 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교육의 다른 요소들, 즉 지식과 욕구를 넘어서는 이상적인 상태를 좋은 삶으로 여긴다. 이러한 좋은 삶의 확장된 의미는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상태를 필요로 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둘째, 교육에서 정의와 기쁨을 추구한다. 정의는 모든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며, 기쁨은 정의가 실현된 관계 속에서 삶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서로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반면 질서를 형성하는 요소가 상실되어 있다. 교육에서 정의와 기쁨을 추구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정의와 기쁨이 교육에서 상실되었을 때 좋은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정의가 결여되었을 때 서로를 동등한 상대로 보지 않고 힘이 약한 상대를 종속적 존

재로 봄으로써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며 존경, 사랑, 우정과 같은 기쁨의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셋째, 도덕적 판단의 준거를 제공한다. 교육은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것은 가치에 대한 공유된 준거가 있을 때 가능하다. 월터스토프는 교육목적으로 추구하는 평화는 실재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기독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월터스토프는 이러한 평화의 가치를 인식 토대로 살아 다양한 삶이 조화롭게 존재하는 본래적 모습의 세계를 바라보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의 관점은 지식을 토대로 한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세계 인식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지식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몰가치적이거나 물질만능주의와 같은 그릇된 가치를 경계하고 모든 곳에서 인류가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IV. 의미와 한계

앞 장에서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의 적합성을 개념적 차원, 평화 구현의 차원, 교육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은 개념적 차원에서 사회적 실제, 삶의 서사적 통일성, 전통의 삼중요소를 충족시키는 재개념화된 가치이며, 평화 구현의 차원에서 본질적이고 적극적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다원주의 사상적 불일치의 갈등을 다룬다. 또한 교육적 차원에서는 좋은 삶의 범주를 확장하고 정의와 기쁨의 요소를 추구하며 도덕적 판단의 준거를 제공함으로써 다원주의 사회의 다양한 요소와 가치들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공존하면서 개인 뿐 아니라 사회의 좋은 삶을 광범위하게 추구하는 데 기여한다.

이 장에서는 다원주의 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의 교육적 차원, 기독교적 차원, 다원주의 사회의 차원에서 그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적 차원이다.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은 교육에서 정의와 기쁨을 추구함으로써 다원주의 사회의 총체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각기 다른 기준의 탁월성을 수용하면서도 궁극적 탁월성으로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도덕성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평화교육의 구체적 방안은 미흡한 상태로 적극적 평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독교적 차원이다.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은 기독교적 정신의 핵심으로서 평화를 삶 속에 함양하고 실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독교 전통의 핵심인 평화는 기독교 사회에 국한되지 않으며 세속 사회에도 중요한 가치이다. 칼뱅은 이에 대하여 일반은총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양심에 근거하여 평화를 누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믿음을 공유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올바른 평화를 공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원주의 사회의 차원이다. 월터스토프가 교육목적으로 추구하는 평화 개념은 다원주의 사회의 도덕성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하다. 이것은 사회적 맥락과 상황과 무관한 법이나 규범이 아닌 사회적 실제, 삶의 서사적 통일성, 전통으로 재개념화된 덕의 요소를 충족시킨다. 여기에는 실재를 인정하는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데, 실재는 다원주의의 상실된 도덕적 판단 준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터스토프가 기독교적 실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재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규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현정(2014). 『초등학교에서의 평화교육: 월터스토프의 관점』.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정·유재봉(2014). 『교육목적으로서 평화: 월터스토프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9. 33-59.
- Galtung, J.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강종일, 정대화, 임성호, 김승채, 이재봉 역 (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 MacIntyre, A. (1981) *After Virtue*. 이진우 역(1997).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 Veith, Jr., G. E. (1994) *Postmodern Times*. 오수미 역(1998). 『현대 사상과 문화의 이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Wolterstorff, N. P. (1983). *Until Justice & Peace Embrace*. 홍병룡 역(2007).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때까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Wolterstorff, N. P. (1980). *Art in Action: Toward a Christian Aesthetic*. 신국원 역(2010). 『행동하는 예술』. 서울: Ivp.
- Wolterstorff, N. P. (2002). *Educating for life: Reflection on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 Wolterstorff, N. P. (2004). *Educating for Shalom*. 신영순, 이민경, 이현민 역(2014). 『샬롬을 위한 교육』. 서울: SFC.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월터스토프 평화교육의 적합성 검토’ 에 대한 토론

임정연(한성대학교 교육역량개발센터 책임연구원)

I.

본 연구에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간에 일어나는 의견 불일치와 갈등, 분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으로 월터스토프 평화교육을 제시하고 그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토론자는 이 발표문이 통념적인 평화 개념과 평화교육에 대한 시각을 확대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현대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차원적으로 통찰하게 해주는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이 개인 삶의 풍요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좋은 삶을 광범위하게 추구함으로써 현대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바이다. 이하에서는 논문의 핵심적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논문 내용이나 다원주의 사회 현실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II.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평화교육의 양상이 평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 평화의 개념은 사람, 시대, 사회마다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평화 개념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은 지식이나 웰빙 등 교육의 요소를 넘어서는 이상적인 상태로서 본질적이고 조화롭고 화목한 관계인 평화를 교육목적으로 추구한다. 기존의 평화는 외적 전쟁이나 폭력 제거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통한 평화 추구에 한정되었으며, 소극적으로 평화의 의미를 규정함으로써 온전한 평화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목적으로서 월터스토프의 평화는 총체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존의 평화를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온전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월터스토프 평화교육의 적합성을 개념적 측면, 평화 구현의 측면,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IV장에서는 그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은 첫째, 개념적 차원에서 사회적 실제, 삶의 서사적 통일성, 전통의 삼중 요소를 충족시키는 재개념화된 가치라는 점, 둘째, 평화 구현의 차원에서 본질적이고 적극적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다원주의 사상적 불일치의 갈등을 다룬다는 점, 셋째, 교육적 차원에서 좋은 삶의 범주를 확장하고 정의와 기쁨의 요소를 추구하며 도덕적 판단의 준거를 제공함으로써 다원주의 사회에서 개인 뿐 아니라 사회의 좋은 삶을 광범위하게 추구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III.

윌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이 현대 교육의 도덕성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원주의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이 되기 위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윌터스토프 평화교육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는데, 평화교육은 기존 교육의 대안인가 혹은 보완인가? 평화교육의 목적은 합리성 또는 웰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 평화교육이 기존 교육의 목적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나 평화교육이 기존 교육의 보완인지 대안인지는 불분명하다. 만일 평화교육이 기존 교육의 보완이라면 기존 교육의 어떤 점을 보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교육을 넘어서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윌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의 적합성을 주로 이론적인 논의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데,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평화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평화교육은 교육에서 정의와 기쁨을 추구함으로써 다원주의 사회의 총체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학교에서 발생하는 도덕성 상실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다원주의 사회에서 평화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평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평화교육의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독교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윌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이 종교적 토대가 없는 공교육에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윌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은 기독교적 정신의 핵심으로서 평화를 삶 속에 함양하고 실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종교적 전통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공교육에서의 평화교육은 어떠한가? 물론 평화는 세속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이며 공교육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다만, 종교적 토대가 없는 공교육에서 평화의 본래 의미를 온전하게 공유하거나 함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끝으로, 오늘 이 논의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현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 특히 평화교육이 우리 교육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 한시적인 논의가 아닌, 지속적인 담론을 생산하는 동인이 되기를 기대한다.